

2023 년 11 월 19 일 “(추수감사절) 성도를 주심에 감사”(고전 1:4)

추수감사절을 맞아 성도(친구)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친구 없이는 즐거움도 없다’

어거스틴은 친우회를 결성하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신비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신학자로서 기독교 사상을 발전시킬 때에 친구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바라는 동경과 괴로워하는 곤경을 바라보며 인간의 원초적 불안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에게 친구들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과 교회 일꾼들과 늘 소통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교회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며,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힘을 얻고 경이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 격려 받는 가운데 삶과 관계 속에서 진보합니다. 말씀이 살아 꽃피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회심하기 전 사도는 사람을 가리고, 틀렸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는 사람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시로 여겼습니다.

<성도를 주심에 감사>

사도가 쓴 여러 서신서들(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등)을 보면 성도에 대한 감사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고전 1:4, 롬 1:8, 엡 1:16, 골 1:3, 살전 1:2, 딤후 1:3-4, 몬 1:4 등...

바울은 교회서 만난 성도들의 귀한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를 배우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식구들, 봉사와 친교 때마다 만나는 성도들, 모두 감사한 대상들입니다. 좋은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성 어거스틴이나 바울에게 친구(동역자들)이 어떤 의미였을 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2. 내게 보내주신 친구요 성도에 대하여 어떤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